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조심하세요.

남의 ID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에서 부정하게 구매한 상품을 아파트 빈방에 부치는 등 유학생 등을 수령책으로 끌어들이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자택에서 짐을 받고 지정된 곳에 전송하십시오.’ ‘빈방에서 짐을 수령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등의 수상한 아르바이트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뭐!? 경찰입니다! 그 상품은 부정하게 구매한 것이니 당신을 체포합니다!

네. 택배입니다.

‘자택에서 짐을 받고 전송할 뿐.’

일본 생활은 돈이 드네~.

10만엔이나 벌 수 있는 거네.

쉬운 알바라서 다행이야~.

이걸 전송만 하면 되는 거지.

‘빈방에서 짐을 받을 뿐.’

이 방에서 짐을 받으면 되는 거지.

10만엔이나 벌 수 있구나

일본 생활은 돈이 드네~.

쉽게 돈 버는 알바 없을까?

근데 이 방은 누구 방인가...?

경찰입니다! 불법 침입으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뭐!?

범죄 수법에 대해서

- 범죄 조직이 부정 액세스 등으로 입수한 남의 ID나 비밀번호를 악용해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상품을
 - 유학생 등에게 받게 하고 범인에게 전송시킨다
 - 빈방을 배송처로 지정해 유학생 등에게 받게 한다
 는 수법을 쓰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빈방에 허가없이 침입하거나 짐을 받는 것은 범죄이니 처벌 대상입니다.

짐을 받은 경우

절도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범행 형태에 따라 죄명이 다릅니다.)

빈방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짐을 받기만 하는 쉬운 아르바이트’는 조심하세요!!

Shimane Prefectural Police

